영국 정부 창조산업[1]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2008년 2월 22일 영국 정부는 '창조적 영국: 새 경제를 위한 새 재능'(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라는 제목의 정책문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영국 문화매체및스포츠부(DCMS), 사업기업및법규개혁부(BERR) 및 혁신대학및기술부(DIUS) 3개 부처의 공동작업으로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영구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세부적인 계획이다.

이 '창조적 영국' 정책은 정부 및 산업계에 창조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친 26여개의 주요 의무를 부과한다. 이 정책은 재능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영국 창조 산업의 국제적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고안되었다. 이 정책은 영국의 창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성공 사례임을 인지한 정부가 창조 산업계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능 있는 인력풀 및 다른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세부 정책은 개인의 창조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 모든 배경의 사람들의 창조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000개의 수련직 창출
- o 차세대 브로드밴드로의 경로를 연구하기 위한 독자적인 검토 방안 확보
- o 세계 창조 산업 컨퍼런스 – 창조적 및 경제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을 한자리에 집결하는 연간 행사 개최
- o 산업계가 자발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09년까지 인터넷상 불법파일 공유 제재 법의 재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특히, 영국 정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이해 조정과 불법파일 공유 제재를 위한 논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와 관련 분야 사이의 자발적 또는 상업적 협약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는 이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2008년까지 마련하고, 2009년 4월 시행할 것이라고 이번 정책문에서 발표하였다.

---

1) 영국에서는 우리가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하는 산업을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한다. 창조 산업이란 개인적인 창의력, 기술 및 재능에 의존 지적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창조 산업에는 광고, 건축, 예술, 디자인, 패션,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 출판, 방송, 전통문화 등의 13개 산업이 포함된다.

<출처>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DCMS/BERR/DIUS, 2008. 2. 22.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 Governmaent unveils new action plan for the creative industries", DCMS/BERR/DIUS joint press release, 2008. 2. 22.